

축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 속에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청해어린이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 교육에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불태우고 계시는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완도군청년 연합회 김응배 회장님과 청년회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 김명식 교육장님, 완도군의회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이범성, 최정욱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님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어린이가 건강한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린이들이 바르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개인과 단체들 간 소통을 위해서는 교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육아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결혼은 물론 출산을 기피하여 세계 200여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절벽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미래의 기둥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우리 완도의 꿈과 미래를 맡기고 일터로 나가시는 모든 부모님들도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늘 희망을 갖고 함께 노력해 갑시다.

오늘 청해어린이 어울림한마당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